

COTI story



2015. 7. Vol.20
www.coti.go.kr



COTI 특별 Session



COTI 강사 Talk Talk



COTI Inside



COTI Today



우즈베크공무원 글로벌리더십과정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배우다

중양공무원교육원(이하 중공교)은 2015년 4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협조로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공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행정아카데미와 양국 공무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2014년 4월)한 바 있고 본 과정은 이를 통해 추진된 실질적인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류협력 사업이며, 또한, 행자부 한-우즈베크 간 전자정부 협력과제 사업의 일환이다. 교육 과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16주간 행정혁신, 공직가치, 공무원 리더십, 변화관리, 전자정부정

책 및 최신 ICT와 8주간의 실무연수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중공교는 정책관리역량, 행정혁신, 전자정부정책 등을 담당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 및 ICT법제도,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8주간은 ICT 및 전자정부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대학에서 인턴십 과정을 통한 실무연수를 경험하게 된다.

금번 교육과정에 참석한 인사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들로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향후 한-우즈베크 관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및 사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신임관리자과정

• 교육과정 소개 >> 신임관리자과정



신임관리자과정 연혁

신임관리자과정은 지난 1967년 “행정관 훈련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48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대표 교육과정으로, 2015년에는 제60기가 입교하였다.

2013년까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舊 행정고등고시) 합격자가 교육 대상이었으나, 2012년부터 2년간 실시된 민간경력5급채용자과정이 2014년부터 신임관리자과정으로 통합되었다.

교육과정 개요

신임관리자과정은 신임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와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통한 정책기획력을 갖춘 국정수행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5급 신규자에 대한 기본교육과정이다.

신임관리자과정은 공직가치, 정책기획역량, 직무역량,

글로벌역량, 감성소통역량 총 5대 모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통해 신입사무원들은 국가관·공직관·역사관 등 공직가치를 체화하여 국가와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업 배치 후 초급관리자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리더십, 기초직무역량 및 정책기획역량을 함양한다. 최근에는 인문학·과학 통섭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민간기업 현장근무, 사회봉사활동, 재난안전 체험실습교육, 국토순례 등을 통해 국민중심의 현장행정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방식도 현업배치 이후 곧바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집합강의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참여·실습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력5급채용시험 합격자를 신임관리자과정으로 통합하여 5급 공채의 공직에 대한 젊은 열정과 5급 경채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상호 역량향상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협업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부문 HRD 달인을 찾아서



• 중공교 달인 >> 중공교 기획협력과 사서사무관 김제경

수십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올해로 26년째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HRD의 달인인 기획협력과 교류협력담당 김제경 사무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인공은 1990년 3월 (구)총무처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전입하여 사서로써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교육원 발간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60년대 이후 과정보록 교육교재, 연보, 연구보고서 등을 전산화(D/B)하였으며, 당시 자료실을 쾌적하고 안락한 친환경 도서관으로 정비하는 등 현재 COTI도서관의 기초를 닦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02년도에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에서 '교육훈련 성과측정 설문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육훈련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사무관승진 후에는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민관교육발전협의회, 강의스킬 및 HRD과정 운영 등 주로 교수요원의 역량향상과 교육훈련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운영담당자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필요성을 인식하여 'HRD담당자과정'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최초로 개발·운영하여 교수요원의 역량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동시에 강의스킬과정과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순환보직에 의해 교육훈련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 'HRD담당자 업무매뉴얼' 및 'HRD의 이해'를 시리즈형식으로 엮어 편찬하였으며,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사이버 HRD 과정을 제안하여 실현하였다. 이러한 매뉴얼은 공무원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연수기관 종사자에게도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고, 일부 대학의 관련학과에 교재로도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그 후 '13년에는 지금까지 국내 중심 HRD컨퍼런스에 외연을 확대하여 외국의 HRD분야 석학인 로스웰(William J. Rothwell)교수와 국내 HR분야 석학을 초빙하여 「Global Public HRD Conference 2013」을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하였다.

현재도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공동발전과 교수요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그간 쌓아온 교육과정개발·운영, 협의체·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운영을 포함한 교육훈련 업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기관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성을 깨우는 세계음악 여행



이지혜 · 감성기획대표

이 대표는 고위과정 강의를 여러 곳 하고 있지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과정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 애정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모든 예술에는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리더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로서 남다른 리더십을 가진 작곡가를 소개하였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음악사상 가장 많은 다산가로 20명의 자녀와 보석같은 작품수만 1,120여곡이다. 그는 12개의 음을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소리를 구성하고, 조성을 확립하여 소리를 보이게 한 음악가였다. 반면 동시대 헨델은 정서와 감성을 음악에 붙여 넣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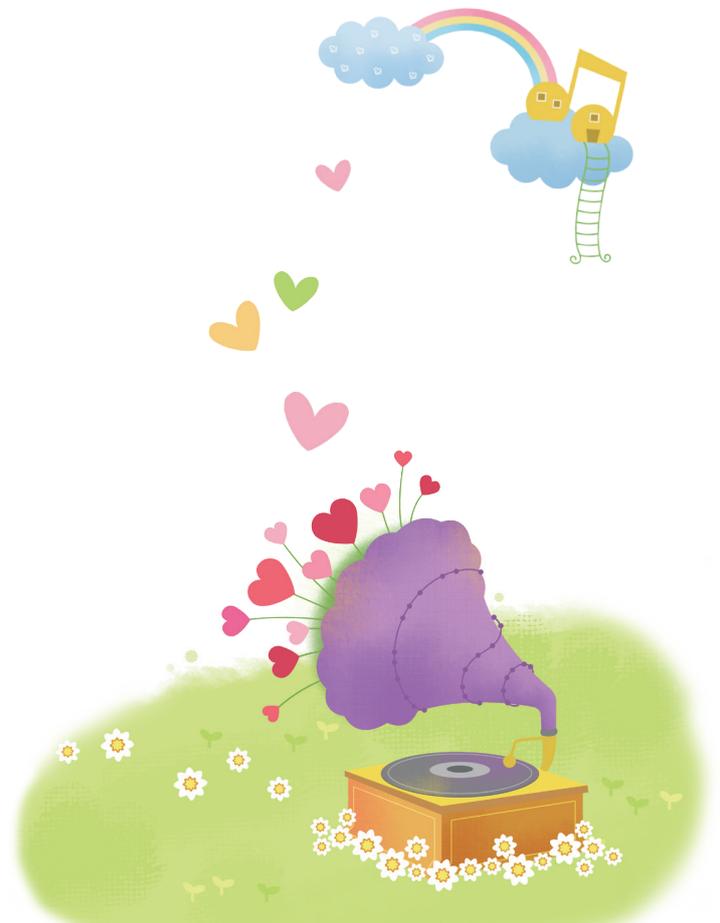
이 바로크시대는 즉흥적 여흥을 위해서 조곡(춤곡 모음곡)과 교향곡으로 음악을 즐겼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은 소년합창단 10년, 연주단원 입단 후 30년간 재직하며 악기연마와 작곡으로 리더십을 길렀으며, 퇴직 후까지 107개의 교향곡 등을 작곡, 백작과 단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고별〉곡을 작곡하여 소통했던 일화는 유명하다고 하였다.

리더는 전체와 부분의 각각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지휘자와 같다고 생각하며, 첫 번째 리더십은 바흐처럼 시대를 넘는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9세기 이후 예술계는 이미 통섭이 이야기 되었다고 한다. 창의적인 것은 예술음악에서 생겨났으며 음악에 시를 붙여 가곡, 목소리를 넣어 교향곡, 오페라에서는 모두를 넣어 종합예술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조화와 소통의 결과물은 나눔과 배려이며 즐겁게 인상 깊게 삶을 즐기도록 할 수 있는게 문화예술이라고 말끝을 맺었다.



한류문화융성, 중공교가 앞장 선다

• 일시 : 2015. 6. 15.(월) • 교육과정 : 제5기 한류문화융성과정



중공교는 지난 6.15.~6.17.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5기 한류문화융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총 37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하여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 이번 교육과정은 현 정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K-Wave' → 'K-Pop' → 'K-Culture'로 진화되는 한류문화 3.0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과정으로 2013년에 개설하여 올해 다섯 번째 운영된 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한류의 배경, 트렌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한류 3.0 미래전략과 창조융합적 사고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모듈을 구성하였다.

먼저, "한류현황 이해"로 한류의 현주소와 K-POP·드라마 등 한류의 대중문화 트렌드, 만화, 뮤지컬 한류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는 "한류뿌리 향유"로 전통음악과 건축 등 한류의 뿌리를 학습하

고, 한국문화의 집(한국문화재단 소속)과 연계, 봉산탈춤 기본 춤사위를 배워보는 현장체험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문화를 되짚어보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세번째는 "한류 발전전략"으로 한류문화 정책, 한류의 경제적 효과 및 미래전략 탐구로 구성하여 현장에 필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연기자로 활약하고 난타의 위력을 세계만방에 떨친 송승환 (주)PMC 프로덕션 회장이 "난타 기획에서 세계 진출까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여 열띤 호응과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번 과정은 현장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한류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한류의 문화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교육생의 평가가 있었으며, 중공교는 앞으로 한류의 지속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류문화융성과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정부의 총체적 협상력 UP! 국제협상과정

• 일시 : 2015. 6. 22.(월) • 교육과정 : 제1기 국제협상과정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통상과 협상 등 국제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1기 국제협상과정을 운영하였다.

2008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230명이 수료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협상과정의 교과목은 크게 협상이론, 사례학습, 실습, 협상체험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협상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대부분의 교과목을 영어로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현업 적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 참가자들은 수료 리셉션 시간에 본 과정을 통해 협상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고, 여러 기관에서 온 교육생들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향후 협상 등 국제업무 수행에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글로벌 협상 무대에서 유연한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피력했다.

본 과정의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도 제2기 국제협상과정(11.23.~11.27.)에서는 협상 이론을 사전과제로 부여하고, 입교 후에는 간단한 협상이론 점검에 이어 바로 사례학습, 시뮬레이션, 협상경진대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체득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간관리자로 명지휘자가 되고 싶다

• 교육생소감문 >> 박재석 5급 승진자과정 수료생



어느덧 6주의 시간이 흘러 사무관 임관이 한 발짝 다가와 있다. 공직생활의 가장 뜻 깊었던 순간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5급 승진자 교육을 받을 때라고 들었고 저 또한 느끼고 체험하는 시

간이었다. 사무관이 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 내용을 모두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6주라는 시간은 한편으로는 짧고 또 한편으로는 긴 시간이었다.

교육을 받고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면 정책기획에 자신감을 얻는 것이었다. 중간관리자로서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키웠다. 특히 사례별로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비교하면서 배워 좋았다.

리더십에서도 다시 한 번 나를 되돌아보고 배드리더십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특히 고전과 역사에서 배우는 명장들의 관리자 리더십과 헌신의 정신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에 순간순간 가슴 뭉클하게 했다.

끝으로 교육을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125기 5급 승진자 317명 모두가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되어 최선을 다해 지휘하고 오랫동안 명지휘자로 남아 주길 바란다.



교육패러다임 변화와 공무원 교육

• COTI 칼럼 >> 김원태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나 1등급 대우를 받는다. 교육은 바로 학습자에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를 습득, 체화하여 행동을 통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4%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경기침체는 일자리 축소와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활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는 국가를 이끄는 정부와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정부의 기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항시 국민 행복과 기업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용주의적 경제의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의식은 과학의식, 전략적사고, 문제인식 등 세 가지 역량이 뒷받침되는 3위1체 융합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과학의식이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과 부강부국을 이룩하기 위한 첩경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 수준과 과기인력 육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말한다. 문제인식이란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현안과제를 찾아 해결하고, 잠재된 예상

문제를 탐색하여 예방하는 자세를 말한다. 전략적사고는 국내외 환경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국익을 최대화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마인드를 말한다.

따라서 공직가치와 리더십, 직무역량을 기본 축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영역에 경제의식, 과학의식,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를 융합시키는 경제의식 관련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학습방법의 혁신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공급자 중심의 ‘가르침(教)’에서 학습자 중심의 ‘배움(學)’의 장으로 전환하여 강사와 교육생간의 쌍방향 토론, 역할실습, 사례연구 등 기억효과를 높이는 모바일시대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학습프로그램도 교육생이 찾지 않으면 교육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공무원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교육원만의 명품 학습과정과 명품학습 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News
1

제33회 중앙교육훈련경연 예선대회 개최



제33회 중앙교육훈련경연 예선대회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중공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대회로 공공분야 우수강사 발굴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대회는 일반강의분야 본선진출자 선발전으로 사전 교안내용심사를 거친 선거연수원 등 22개 기관에서 30명의 교수요원이 출전하여 8명이 선발되었다. 예선 통과자는 오는 11월 20일에 있을 본선대회에서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이 대회를 통해 또 어떤 출전자도 최고의 교수요원으로 등극할 것 인지 자못 궁금하며, 분야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23점의 상장과 부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 강의분야 11(일반8, 영어3), 연구개발분야 5, 교육과정개발분야 7

News
2

베트남 국가행정원(NAPA) 부원장 및 공무원 방원



중공교는 지난 6월 30일(화), 베트남 국가행정원(NAPA) 부원장과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우리원 및 한국의 공무원 교육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방원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측은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 교육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ICT 정책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진행 중인 우즈베크 공무원 장기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였으며 또한, 우리원에서 향후 12월 진행 될 베트남 국외단기훈련에 대한 일정을 함께 논의 하였다. 이번 방원을 통해 양 측은 기관 간 교육프로그램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News
3

건강생활 실천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과천시 보건소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교직원 및 장기과정교

육생 216명을 대상으로 과천시 보건소 소속의 건강지도자들이 교육원을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참가할 당시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개별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News
4

공직가치



중공교는 올 3월부터 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을 다시금 확립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 시청각 자료 및 표준 교육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시청각 자료인 「공직가치 교육용 동영상」은 제작이 완료되어 각급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영상은 인사혁신처·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또한 공직가치 표준교육모듈 개발 관련하여 공직가치를 범주별(국가관·공직관·윤리관)로 구분하여 강의교안을 개발하고 특히 사례 중심의 참여식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및 강의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8월 말)되면 각급교육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향후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직가치 교육의 메카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공직가치 교육교재 보급 및 교육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도 진행해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안내

중공교에는 기본교육, 국정시책교육, 창조교육, 외국공무원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있습니다. 중공교 홈페이지(www.coti.go.kr)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교육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